

연중 제 36 주일:

2016 년 12 월 4 일 (다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44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92 )	봉헌 ( 215 )	성체 ( 172 )	파견 ( 480 )
<p><b>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p> <p><b>1 구역 :</b>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b>2 구역:</b>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b>3 구역:</b>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올리안나.</p> <p><b>4 구역:</b>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릃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04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1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8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1/1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20/16	\$260	0.00	\$40

한인 공동체 크리스마스 디너

성탄 전야 미사후에 구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녁은 차이나타운에서 케이터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친지를 떠나, 외롭게 지내시는분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경기장의 선수처럼(1 코린 9.24 참조)**

박 마리 미셀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몽골리아 선교)

찬바람이 스치는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주님께 바치는 찬미의 노랫소리에 저의 목소리를 함께하며, 특히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전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1964년 8월 28일, 저의 착복식 날을 생각해 봅니다. 21명의 뽀스돌랑(청원자)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지금은 작고하신 관구장 수녀님과 수련장 수녀님의 뒤를 따라서 두 줄을 지어 명동 수녀원 수련원에서 명동대성당으로 엄숙하게 행진하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20년... 그리고 50년이 되어서 금경축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금경축을 맞게 되다니...

수녀 원에 입회하여 오늘날까지 걸온 여정을 돌아보니 멋그저 같은데 펍 멀리 걸어왔구나 싶고,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하는 나의 여정은 목적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금경축 혹은 평신도들의 금혼식 등은 여러번 참석하고 축하도 드렸었지만, 금경축이란 말 이 저에게 해당되니 어리둥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세월의 바탕 위에 이어지는 삶의 여정에 50년이라는 한 점을 찍고, 또 나의 미래를 바라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성탄절 혹은 대축일에는 외갓집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이모, 삼촌들, 그리고 오빠 와 사촌들을 따라서 대축일을 지내려고 원평에서 꼬불꼬불 산길을 걷고 냇가를 건너 수류 본당으로 가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회장님 가족이라고 본당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았고, 본당 수녀님들의 집에서 식사를 한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어느 수녀님인가 기억이 어렵잖으나, 그 수녀님은 저에 게 "너는 수녀가 될 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녀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학창시절 장래희망에 대해 쓸 때마다 '수녀'라고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로 어린 가슴에 수녀라는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X- Mas 합창단 공연-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센클라멘데 어린이 합창단과 베이커스필드 한아름 합창단이 성탄절 맞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저희 성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티켓은 \$10 입니다.

**신부님과 어린이 합창단 - 로마 공연**

11월 22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전신부님과 센크레멘터 성당 어린이 합창단이 로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모두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로마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신, 전신부님 과 임원진,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에게, 축하 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성탄전야 미사**

오후 6시에 히스패닉 공동체와 함께, 구유에질이 사작되었으며, 아기 예수님 축성식도 있겠습니다. 성탄절 미사는, 12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주일 미사와 함께 있겠습니다.

**고백 성사; 주중, 또는 주일미사 30분전**

고백 성사는 주중이나, 주일미사 30분전에 있사오니, 양지하시여,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송년의 밤 - 12월 11일, 오후:6시**

2016년도 한인회 송년의밤은 Panda Palace 에서 12월 11일, 일요일, 오후:6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 변창식; 661-444-0356 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뽀스돌랑 시절 강의 시작에 선생 수녀님께서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제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를 큰 소리로 낭송 하곤하였습니다.

금경축이란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후좌우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한 전환점이 된 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부족한 점, 넘어지고 다쳐던 상처들, 못다 한 점들을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교리 문답]**

**성찬 전례 때 복사가 종을 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 유래는 무엇인가요?**

미사 때 복사는 필요에 따라 종을 치는데, 이는 신자들에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게 되는 축성 전임을 종소리로 신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150항 참조). 종소리를 듣는 신자들은 이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며 주의를 집중하여 거룩한 성체 성혈에 대한 공경과 흠숭을 표현해야 합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